

# 일본 근대의 인신신앙 전개에 대한 고찰\*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의 신격화를 중심으로-

김 우 봉\*\*

---

## 目 次

---

1. 서론
  2. 일본 인신신앙에 있어서 '어령신'과 '현창신'
  3. 일본 근대에 있어서 '인신신앙'과 '국가신도'
  4. 報德二宮神社의 창건
  5. '근로의 신'으로서의 二宮尊徳
  6. 결론
- 

## 1. 서론

일본인의 신앙 중에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인신신앙<sup>1)</sup>이 폭넓게 퍼져 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독특한 민간신앙의 형태는 일본의 고대부터 내려오는 습속이었다. 일본 고대로부터의 인신신앙의 큰 흐름은, 원한을 남기고 죽은 자의 사령 死靈이 재앙을 내린다는 '원령(怨靈)' 관념이 기초가 되어, 이 원령들의 원념을 위무하여 재앙에서 몸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이었다.<sup>2)</sup> 이렇듯 원령을 모시는 신앙은 특히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성행하였다. 그런데 인신신앙이 발전되고 전개되어 가면서 근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러서는 '원령'을 신으로 모셨던 고래의 인신신앙과는 달리 '실재의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형태를 띠면서 발전해 갔다. 특히 근대에는 인신신앙이라는 민간신앙적 요소에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또 다른 인신신앙의 형태로, 천황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 한 비범한 충신

---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3-A00078).

\*\*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강사.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원 겸임연구원 일본문화전공.

1) 일본의 인신의 유형은 크게 인신이 된 시기가 생전인가 사후인가에 의해 나눌 수 있다<『現代民俗學入門』p.108.>. 본고에서의 인신의 범위는 사후로 한정한다.

2) 이 같은 원령을 신격화 하는 신앙은 고대에는 위로는 국가에서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확산되었고, 재앙신(원령을 말함, 필자주) 진정시키기 위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신사가 고대에서 근대까지 건립되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건립되고 있다(고마쓰 가즈히코 저·김용의 외 옮김, 『일본인은 어떻게 신이 되는가』(2005), pp.5~6.).

이나 의인, 성인을 신격화하고 신사에 모셔 인신화하였다. 위인의 위업을 현창(顯彰)하여 국민교화 할 목적으로 신사에 모셨던 것이다. 이러한 현창신 유형의 신사는 근대에 들어서 급증<sup>3)</sup>하였다.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sup>4)</sup>는 이 중의 한명이다. 니노미야 손토쿠는 江戸시대 말기의 농정가인데, 明治시대에 들어와 호토쿠니노미야신사(報徳二宮神社)<sup>5)</sup>에 모셔졌다.

기치지 쇼이치(吉地昌一)는 “인신신앙의 인물로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sup>6)</sup>나 와케노 기요마로(和氣清鷹)<sup>7)</sup>와 같은 문관도 있고,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sup>8)</sup>나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sup>9)</sup>대장<sup>9)</sup>과 같은 무인도 있지만,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 이하 니노미야로 함.)는 報徳의 도<sup>10)</sup>를 세우고, 흥국안민의 대도를 실천한 사람으로서 유일한 특색을

- 
- 3) 고마쓰 가즈히코 저·김용의 외 옮김(2005), 『일본인은 어떻게 신이 되는가』, 민속원, p.7.
- 4) (1787~1856) 지금의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오다와라(小田原)에서 출생.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근로와 근면정신으로 20세 때 일가를 일으키고 1818년(文政元) 오다와라(小田原)번의 가로(家老) 핫토리가(服部家)의 제정 재건을 맡아 이를 성공시켰다. 계속하여 오다와라번의 분가인 우쓰가(宇津家)의 제정재건의 명을 받아 1837년(天保8) 사쿠라마치령(櫻町領)의 재흥에 성공을 하였는데 이때의 일련의 시책을 報徳仕法이라고 한다. 1842년(天保3)에 막부의 水野忠邦에게 발탁되어 농민의 신분에서 무사의 신분으로 되었다. 1856년(安政 3년) 70세로 이마이치(今市)에서 사망 대표적 저작으로 「三才 報徳金毛録」 등이 있다. 독자적인 사상과 실천주의로 빈곤으로부터 구제할 마을은 600여 마을에 이르며, 사상·수리·토목·건축·경영·금융·문학까지 모든 재능을 발휘한 일본의 위인 중의 한명으로 그려지고 있다.
- 5) 현재 일본 각지의 二宮尊徳을 모신 神社는 총 24곳(平成11年 12月 현재)이 있다. 본고에서 논하는 신사는 明治시대에 국가가 현사(縣社)로서 공인한 두 신사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오다하라정(小田原町)의 報徳二宮神社와 도치기현(栃木縣) 이마이치정(今市町)의 報徳二宮神社로 한정한다. 각지의 신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牛首別報徳二宮神社(北海道中川郡豊頃町二宮), 2.大原報徳二宮神社(岩手縣東磐井郡大東町大原), 3.相馬横峯報徳二宮神社(福島縣相馬郡鹿島町寺内横峯), 4.今市報徳二宮神社(木縣今市市今市), 5.櫻町二宮神社(木縣芳賀郡二宮町物井), 6.花田二宮神社(茨城縣眞壁郡關城町花田), 7.利南報徳二宮神社(群馬縣沼田市上久屋町), 8.報徳折田神社(群馬縣吾妻郡中之條町折田), 9.武州二宮神社(埼玉縣東松山市松本町), 10.日高町榮新田報徳神社(埼玉縣日高市森戸新田), 11.日高町新報徳神社(埼玉縣日高市原宿), 12.皆野町二宮神社(埼玉縣秩父郡皆野町大字三瀧), 13.相模大野報徳二宮神社(神奈川縣相模原市大野), 14.相模原二宮神社(神奈川縣相模原市南臺), 15.小田原報徳二宮神社(神奈川縣小田原市城内), 16.伊那南原二宮神社(長野縣上伊那郡南箕輪村南原), 17.田原報徳二宮神社(静岡縣浜北市田原), 18.掛川報徳神社(静岡縣掛川市倉眞), 19.豊橋報徳二宮神社(愛知縣豊橋市東細谷町奥田), 20.大原報徳神社(沖繩縣島尻郡具志川村大原), 21.久米島二宮神社(沖繩縣久米島), 22.(邸内社)報徳稻荷(神奈川縣小田原市荻窪 報徳二宮神社), 23.(邸内社)報徳稻荷大明神(神奈川縣南足柄市武松 富士機器) 24.(邸内社)二宮神社(神奈川縣小田原市栢山 二宮德氏)이다. 창건시기를 보면 小田原市는 明治27년 今市市는 明治30년, 牛首別(豊頃)는 大正9년, 利南(沼田市)는 大正5년에 창건되었다. 또 皆野는 昭和11년, 日高町 榮新田는 昭和8년, 相模原二宮神社는 昭和22년, 相模大野報徳二宮神社는 昭和23년에 창건되는 등 폐전전의 것도 있고, 일본의 폐전 후에 창건된 것도 있다. 한편 창건년도를 알 수 없는 것도 있으며 대부분 폐전 후의 것일거라고 한다.<2005년6월, 小田原二宮報徳神社의 자료제공에 의함>.
- 6) (845~903) 平安시대의 정치가, 유학자. 자세한 주(14) 참조.
- 7) (733~799) 奈良말기에서 平安초기의 관료.
- 8) (1294~1336) 南北朝시대의 무장. 충성의 상징적 인물. 자세한 주(24) 참조.
- 9) (1849~1912) 明治시대의 육군대장. 충성의 상징적 인물.
- 10) 二宮尊徳의 사상을 보덕사상(報徳思想)이라고 한다. 그의 가르침의 근본이 보덕에 있다고 하여 보덕

가지고 있다”<sup>11)</sup>고 말한다. 이와 같이 니노미야는 일본의 인신이 된 인물 중에서도 <유일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근대 인신신앙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니노미야는 일본근대에 인신으로 신사에 모셔진 것 이외에도 일본근대의 국정수신교과서에 가장 높은 빈도(18개 과, 明治천황 다음으로 많은 횟수임)로 국민적 모범인물로 등장하고, 일본의 패전 전에는 전국의 소학교에 동상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니노미야가 매우 특색이 있는 인물임을 반영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일본근대에 인신신앙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여 일본 고대부터 있어왔던 인신신앙이 근대에 들어와 국가신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전개되어 가는지를 살피고, 明治기에 들어와 니노미야는 어떠한 목적으로 報德二宮神社의 신으로 신격화되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sup>12)</sup>

## 2. 일본 인신신앙에 있어서 ‘어령신’과 ‘원령신’

일본 인신신앙의 시작은 平安시대의 ‘어령신앙(御靈信仰)’이라는 것과 관련이 깊다. 어령신앙이란 원령(怨靈)이 내리는 재앙인 다타리(祟り)를 피하기 위해 제사으로써 진정시킨다는 신앙이다. 원령이란 억울하게 죽은 자의 혼령(靈)이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령을 모셔 진정시킴으로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힘으로 바꾸어 탈을 면하고 복을 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어령신앙의 형태가 전통적인 인신신앙의 형태이다. 원령관념에 근거한 어령신앙은 일본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sup>13)</sup> 인신신앙의 큰 맥락으로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크게 성행하였으

(報德)선생이라고 불리고, 그의 농촌에 대한 일련의 시책을 보덕사범(報德仕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성(至誠), 분도(分度), 근로(勤勞), 추양(推諫)으로 일컬어지는 데, 이를 통상 ‘보덕 4강령(報德四綱領)’이라고 한다. 이 4강령을 보다 쉽게 말하면, 지성은 정직·성실을 말하며, 근로는 지성을 근간으로 하는 근로이며, 분도는 각자의 생산력에 알맞은 소비를 하는 절약이며, 그리고 이 분도라는 검약에 의해 생긴 부(富)를 타자(마을, 사회, 국가)에 환원하는 것을 추양이라고 한다.

- 11) 吉地昌一(昭和14년), 「二宮尊徳新撰集」『尊徳逸話・教訓要説』, 二宮尊徳翁全集刊行會 p.374.
- 12) 이 논문과 관련한 저명한 논문과 저서로는 柳田國男의 「人を神に祭る風習」『定本柳田國男全集』第5卷), 筑摩書房, 1969. : 井上滿郎의 「御靈信仰の成立と展開-平安京都市神への視覚-」(柴田實編『御靈信仰』), 雄山閣出版, 1984. : 小松和彦의 「「たましい」という名の記憶装置」(『記憶する民俗社會』), 人文書院, 2000. : 小松和彦의 『神になった人びと』 淡交社, 2001 등을 들 수 있다.
- 13) 이 원령이라는 관념의 탄생은 물론 단순히 원한을 남기고 죽은 인간의 재앙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에 기초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과 달리 정치적 음모에 의해 非業의 죽음을 거둔자가 원령이 되어 재앙을 내린다고 주장함으로써, 서민 등의 피지배계층이 주모자인 위정자의 악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岸根敏幸(2004), 『日本の宗教-その諸様相』, 晃洋書

며 현재에도 그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인신으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sup>14</sup>를 들 수 있다. 일본의 3대 마쓰리의 하나인 오사카의 덴진마쓰리(天神祭)는 이 학문의 신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시고 있다. 미치자네는 유배지에서 불행한 죽음을 당한 그의 혼령 즉, 원령을 신사에 모셔 진정시킨 것과 관련하여 일본 최초의 ‘인신신앙’의 시작이라고도 전해진다.

근세에 들어서는 인신신앙의 형태가 변하게 된다. 다타리를 내릴 것 같은 비업에 죽은 자의 원령을 신으로 모셔졌던 것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권력을 행사하고, 천수를 다한 사람도 신사나 당(堂)을 지어 신으로 모시는 일이 행하여 졌다. 이러한 인신의 유형을 ‘현창신(顯彰神)<sup>15</sup>’이라고 한다. 이는 사자가 생전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칭송하기 위해서 ‘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위정자가 자신의 정치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결과 등장 한 것이다. 근세의 인신신앙의 대표적 인물로 도요쿠니사(豊國社)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도쇼구(東照宮)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같은 인물을 들 수 있다.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 스스로가 사후에 신으로 모셔지기를 희망한 경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최초<sup>16</sup>라고 보고 있다.

明治시대에 들어서 이러한 근세 현창신계의 인신신앙은 보다 넓게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 明治시대는 신이 된 인물의 업적과 위업을 기리는 현창형 신사가 많이 건립되게 되는데, 이는 민중의 인심을 지배하여 통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창신은 다타리 관념을 내포하는 원령형과는 다르게, 신사라는 ‘기억장치’ 이외에 정치권력과 관련한 ‘지배의 장치’가 작용 하고 있다.<sup>17)</sup>

房, p.81).

14) 스가와라노 미치자네(845~903). 平安시대 전기의 공경(公卿), 학자, 문장(文章)박사. 894년 건당사(遣唐使)의 중지를 건의 함. 899년 우대신(右大臣)이 되지만 좌대신 스가와라 도키히라(藤原時平)의 모략에 의해 다자이노 곤노소치(大宰權帥)로 좌천되어 그곳에서 사망한다. 그의 불행한 죽음에 의한 원령을 신사에 모셔 진정시킨 것과 관련하여 미치자네는 일본에서 최초로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人神信仰의 시작이라고도 전해진다. 오늘날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는 거의 일본전역에 덴진(天神)으로서 신사에 모셔져 ‘학문의 신’으로 추앙 받고 있고 그 신사 수는 일만이 넘는다는 점에서 덴진은 일본인에게 있어 가장 친숙한 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京都의 기타노 덴만구(北野天満宮)는 942년(天慶5)에는 교토에 사는 다지히노 후미코(多治比文子)에게, 947년(元暦1)에는 오미(近江)지방 히라구(比良宮) 신직(神良種)의 아들 다로마루(太郎丸)에게 탁선이 내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혼령(靈)을 모신 것이 계기가 되어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15)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는 그의 저서 『神になった人びと』(淡交社, 2001, p.12)에서 ‘원령(怨靈)’이라는 관념에 의한 인신을 ‘祟り神’계의 인신 사자가 생전에 걸출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모셔지는 신을 ‘顯彰神’계의 인신으로 부르고 있다. 필자는 『現代民俗學入門』(2000)에 인신신앙의 대상으로서 ‘御靈神’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 또한 어령은 원령과 같은 의미(『日本民俗大辭典』(1999), p.655)로 쓰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본의 신앙의 한 형태로 ‘어령신앙’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祟り神’계의 인신은 ‘어령신’으로, 현창계의 인신은 현창신(顯彰神)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6) 고마쓰 가즈히코 저·김용의 외 역(2005), 전계서, p.7.

17) 小松和彦(2001), 전계서, pp.12~13.

근대에는 고대 어령신앙으로서의 인신신앙 성격이 신정부를 만들기 위해 민심을 결집시키고, 신정부에 봉사시키기 위한 상징적 성격의 현창신으로 그 성격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근대의 현창신의 대표적 인물로 미나토가와신사(湊川神社)의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호토쿠니노미야신사(報徳二宮神社)의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령신과 현창신에 대한 구분을 해보면 <표1> 18)과 같다.

<표1> 어령신과 현창신의 비교

인신의 시기	인신의 구분	人神化의 계기	신앙의 대상	주로 신앙된 시대
사후 (死後)	어령신 (御靈神)	다타리를 내리는 怨靈을 진정시켜 모심(사자의 불행한 죽음이 원인)	어령신	고대, 중세
	현창신 (顯彰神)	· 생전의 위업과 명망을 칭송하여 덕행을 기립. · 국민교화(신정부에 봉사시키기 위함)	의민(義民), 무장, 위인, 명치유신의 공신, 종교가 등	근세, 근대

그리고 어령신과 현창신의 보다 세세한 특징적 요소는 고대의 어령신앙의 대표적 인물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와 근대의 현창신계의 대표인물 중의 한명인 니노미야 손토쿠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표2>참조).

<표2> 어령신과 현창신의 주요인물 성격 비교

인신 형태	대표인물 (신사명)	인신이 된 시대	주된 전승	신사 형성 주체	이야기 전달자	이야기 전달 장소	신이 된 결정적 요소	신사 제신의 성격
어령신	菅原道眞 (天滿宮)	平安	전설, 민담	민간	민중	민간	다타리(祟?)를 면하기 위함	학문의신, 天神
현창신	二宮尊徳 (報徳二宮神社)	明治	전기(報徳記, 修身교과서)	국가(관료)와 二宮의 문인	궁내성, 문교부, 보덕사	학교교육, 사회교육	모범인물로서 국민교화	근면의 신, 학문의 신

<이 도표는 필자의 분석에 의함.>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경우는 민간에서 전설·민담에 의해 전승되었으며, 이야기의 전달자는 민중이었다. 그리고 신으로 모시게 된 결정적인 점은 불행한 죽음을 맞은 원령을 신사에 모셔 위무함으로써 무서운 다타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학문의 신’·‘천신(天神)’으로 모셔지고 있다.

니노미야에 대한 전승은 그의 전기인 『報徳記』의 대량출판과 관계가 있다. 『報徳記』는

18) 『現代民俗學入門』(佐野賢治의 3인, 吉川弘文館, p.108)의 도표를 필자가 좀 더 보강함.

니노미야의 제자였던 나카무라번(中村藩)의 번사 도미타 다카요시(富田高慶)가 그의 스승에 대한 생애와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의 전달과 유포과정에는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 明治13년(1880) 『報徳記』 8권을 나카무라 번주(藩主) 미쓰타네(充胤)가 明治천황에게 주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천황의 명으로 궁내성을 통해 그리고 이어서 농상공부를 통해 인쇄되고 널리 유포되었다. 이렇게 하여 『報徳記』가 널리 읽혀져 니노미야는 위인·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더 나아가 『報徳記』의 유년기의 내용은 일본근대의 교과서의 하나인 검정수신교과서와 국정수신교과서에 실리어 학교교육을 통하여 국민이 본받아야 할 모범인물로 제시된다. 근대의 니노미야의 신격화의 과정은 위로부터의 의도성이 보이는 국가 권력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 고래의 습속으로써 다타리를 피하기 위해 형성되어 왔던 인신신앙은 근대에 오면 신앙의 조건이 개인의 구제와는 관계가 없는, 국가를 위한 국민교화의 목적으로 현창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일본 근대에 있어서 ‘인신신앙’과 ‘국가신도’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일본 근대에 들어와서 인신신앙의 신관념이 변화하고 정착하게 된 데에는 일본근대에 형성된 ‘국가신도’라는 신도의 변화 양상과도 관련이 깊다.

이는 <실재의 인간이 신으로서 제사 받는다는 풍습이 明治의 ‘국가신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이시다 이치로(石田一郎)의 언급에서 잘 나타난다

묘에 장사되어 있는 실재의 인간이 신으로서 제사 받는다는 풍습은 스이카 신도(垂加神道)에서 강해져, 明治의 國家神도에 의해서 완성되어, 과거의 천황은 물론, 충신·義士도 内外의 戰沒者도 신으로서 제사 받게 되었다.<sup>19)</sup>

즉, 니노미야 등과 같은 여러 인물들이 근대에 들어와 인신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은 국가신도의 정착과정과 함께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신도가 인정해주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실재의 인간이 신으로 모셔지는 인신신앙이 ‘국가신도에 의해서 완성’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다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근대의 정부는 국가신도의 위엄을 보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신사의 신규설립을 허락하

19) 石田一郎(昭和58), 『カミと日本文化』(神道論序説), ぺりかん社, pp.95~96. (이하 번역과 밑줄은 필자에 의함.)

지 않았고, 민간의 유지에 의한 신사 창건은 開港場과 같은 신개발지에 천조대신을 모신大神宮 등이나, 北海道의 개척지에 우지가미(氏神)로 신설된 작은 신사를 제외하고, 강력하게 억제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신궁요배전의 건립도 신사에 준하여 제한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신도의 결실을 거두고, 천황제적 국민교화에 유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부의 주도로 거액의 국비, 공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신사가 창건되었다. 이들 신사에는 정부의 의향에 의해서 창건된 소수의 관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은 국가 신도에 있어서는 방류의 의의밖에 갖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교육적 효과나 지방 행정상의 배려에서 특별히 창건을 인정받은 신사로 지방 순경의 대상이 된 것이나, 특정한 종교적 신사도 있었다.<sup>20)</sup>

즉, 근대에는 원칙적으로 신사의 신규설립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국가신도’의 결실을 거두고, 천황제적 ‘국민교화에 유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부의 주도로 거액의 국비, 공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신사를 창건>하였던 것이다. 일련의 창건신사의 인신이 된 인물들은 대략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sup>21)</sup>,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히라다 아쓰타네(平田篤胤),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니노미야 손토쿠, 구로즈미 무네타다(黒住宗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근대창건 신사의 계통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 ① 근왕(勤王)을 기준으로, 권력자나 무장을 모시는 신사(建勳神社, 豊國神社, 豊榮神社 등.
- ② 江戸시대의 번주를 모시는 신사(구(舊) 30藩에서 創建). 水戸學의 지도자를 모시는 신사(本居神社=本居宣長, 彌高神社=平田篤胤·佐藤信淵 등.
- ④ 明治유신의 지사나 공신을 모신 신사(松陰神社=吉田松陰, 梨木神社 등).
- ⑤ 군공을 세운 군인을 군신으로 모신 신사(乃木神社=乃木希典, 東郷神社=東郷平八郎 등).
- ⑥ 의인이나 공공의 일에 힘쓴 자를 모시는 신사(赤穂大石神社=大石義雄 등 47土, 小田原報徳二宮神社=二宮尊徳, 貞享義民社=多田加助 등).
- ⑦ 종교가(神道家, 필자주)를 모신 신사(흑주교의 宗忠神社=黒住宗忠, 禊教의 井上神社=井上正鐵 등).<sup>22)</sup>

20) 村上重良(1986), 『天皇制國家と宗教』, 日本評論社, p.177.

21) 江戸시대 元和 5년(1619) 창건된 도요쿠니사(豊國社)는 도요토미(豊臣) 집안의 조상 및 히데요시(秀吉)의 사당과 묘(廟墓)를 중핵으로 하여, 豊臣집안과 그 신하들을 ‘氏子’로 하였다. 그리고 창건된 지 겨우 20여년 만에 소멸하였다. 그러나 250년 이상 지난 근대에 들어서 돌연 명칭 신정부는 반 徳川の 심벌로써 역사상의 인물로, 『太閤記』를 통해 에도시대에 민중에게 알려진 히데요시를 발견한다. 이에 이미 소멸한 豊國社의 재건이 계획되고, 明治 6년(1873)에는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를 모신 미나토가와신사(湊川神社)와 함께 별격관폐사가 되고, 明治 13년에는 구 豊國社의 지역에 豊國神社가 건립된다(『神になった人びと』, p.155).

22) 村上重良(1986), 전계서, 동일 쪽.

신으로 모셔진 자들의 인물 성격을 보면 근왕을 기준으로 한 권력자나 무장, 江戸시대의 번주나 水戸學의 지도자, 명치유신의 지사나 공신 군인 이외에도 공공의 일에 힘쓴 자, 江戸후기의 신도가(神道家)나 공공에 힘을 기울인 자 등 다양하다. 니노미야의 경우는 ⑥의 의인이나 공공의 일에 힘쓴 자를 모시는 신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제신은 주로 황족 및 천황을 위하여 충사(忠死)한 개인이었다.

이들의 신사 창건을 통해 천황은 신이고, 천황을 위한 충성스런 죽음을 맞이한 자는 나라에 의해 신으로 모셔져 현창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보인 것이다.<sup>23)</sup>

위에서 나열된 인물 중에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일본근대에 있어서 현창신의 인물로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sup>24)</sup>를 빼뜨릴 수 없다. 그는 근대에 들어와서 멸사봉공하는 충군의 상징인물로 재탄생되었다. 그는 주군에 대한 ‘충의 상징’에서 더 나아가 ‘신정부를 섬기게 하는 상징’의 인물로 등장 하였던 것이다. 그를 모시는 미나토가와 신사(湊川神社)는 明治5년 국가가 제사를 지내는 별격관폐사가 되었다. 이는 근대 특유의 충군현창(忠君顯彰) 유형의 신사로서 최초의 것<sup>25)</sup>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구스노키는 현창신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明治기에 오다와라(小田原)와 이마이치(今市)에 報德二宮神社를 창건하여 니노미야를 신격화 한 것은 그 실제에 있어 국가신도의 단계별 제도 정착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報德二宮神社 창건의 시기는, 국가신도 정착과정의 4단계<sup>26)</sup> 중의 두

23) 村上重良(1986), 전제서, 동일 쪽.

24) (1294-1336) 南北朝시대의 무장: 충성의 상징적 인물.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남북조시대에 카마쿠라막부의 타도와 고다이교(後醍醐)천황의 신정부 발족에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근세에 근왕파 국학자들은 충신의 선조로서 존송하여 숭배를 하였는데, 막부 말에는 구스노키에 대한 숭배가 전국적으로 퍼져 명치 정부는 신정부 발족 후 바로 1868년 미나토가와에 난코샤(楠公社)로서 창건을 허가하고, 명치 5년(1872년)에 미나토가와 신사(湊川神社)로 개칭하여 국가가 모시는 별격관폐사로 승격시켰다. 그는 막부 말의 신정부를 만들기 위한 ‘주군에 대한 충의 상징’에서 근대에는 ‘신정부를 섬기게 하는 상징’의 인물로 변질 되었다(『神になった人びと』 pp.135 ~146). 이러한 것은 명치정부의 천황을 현인신으로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철저히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

25) 小松和彦(2005), 전제서, p.145.

26) 村上重良는 그의 저서 『國家神道』에서 國家神道の 사단계를 ①형성기, ②教義的 완성기, ③ 제도적 완성기, ④파시즘적 국교기로 나누고 있다. ① 형성기(明治유신[1868년]에서 明治20년 대 초두[1880년 대 말까지])는 근대 천황제 국가 성립기의 국가 신도로, 伊勢신궁을 본중으로 하는 전 신사의 재편성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②교의적 완성기(제국헌법 발표 1889년 [明治22]에서 러일전쟁 1905년 [明治38]까지)는 근대 천황제 확립기의 국가신도로, 헌법에 이어서 교육칙어가 천황제적 국민교화의 기준으로써 발표되어, 국가 신도의 이데올로기적 기초가 된 시기이며, ③제도적 완성기(明治 30년대 말[1890] 대 후반)에서 소화초기[1930년대 초두]는 일본 자본주의가 제국주의화한 시기의 국가 신도로, 내무성에 의한 신사행정규정이 확립되어 신사의 정리가 행하여지고 제식(祭式) 등의 신사 제도가 완성되었다. ④파시즘적 국교기(만주사변[1931년]에서 태평양전쟁패전[1945년]까지)는 천황제파시즘 시기의 국가신도로, 일본군국주의는 중국침략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의 군사지배에 돌입하여, 일본의 지배지역에는 점차로 신사가 창건된 시기이다. 이때의 각 종교는 종교단체법에 의해 정부에게 완전히 통제되어, 경쟁협력이 동원되었다. 국가신도는 이 단계에 절정기를 맞아 국민에 대한 정신적지배의 무기로서의 가

번째 단계인 ‘敎義的 완성기’이다. 이는 明治22년(1889, 제국헌법 발포)에서 明治38년(1905, 러일전쟁)까지 해당한다. 즉, 이 시기는 근대 천황제 확립기로서 제국헌법발포(1889)에 이어서 교육칙어(1890)가 천황제적 국민교화의 기준으로써 발포되어, 국가신도 이데올로기의 기초를 마련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국가주의를 위한 국민교화와 국가의식의 고양에 요구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때 제국헌법에 의해 신권적 지위를 부여받은 천황에 대해, 밑으로부터 충성을 이끌어 내게 하는 도덕지침인 교육칙어를 준수할 수 있는, 국민교화의 모범인물이 필요하였는데, 그가 바로 니노미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본 근대에 있어서 인신신앙에 대한 신관념의 변화는 국가신도와 직접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재의 인간을 신으로 모시는 신앙이 <국가신도에 의한 완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신신앙이라는 민간신앙적 요소에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일본인의 전통적인 신관념과는 다른 ‘현장신’이라는 변형 굴절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국가 신도를 지탱하는 근거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니노미야의 신격화는 그가 국민교화에 유력하다고 판단된 인물로서 국가신도체제를 반영하여 현장계의 신으로 탄생된 인신신앙의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 4. 報德二宮神社의 창건

최초의 니노미야를 모실 신사건립을 위한 노력은 니노미야의 묘지가 있는 이마이치 지역에서 明治14년 二宮尊德의 27회기의 기일에, 네모토 겐코(根本源庵)라는 사람에 의해 가장 먼저 일어났다. 다음의 내용에서 잘 나타난다.

明治14년(1881) 무렵 예전의 히라가사키촌(平ヶ崎村, 지금의 今市町 일부)에 살던 根本源庵라는 사람이 선생의 공덕을 흠모하여, 선생을 위하여 小社를 세워 그 英魂을 모시고, 예전의 神領地였던 각 촌을 돌아다니며, 22개 촌에 23명의 받기자를 얻어 사은회를 조직하고 신사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 해가 二宮尊德의 27회기의 기일에 해당되었는데, 今市宿如來寺에서 불사공양의 식을 올리는 것을 보고, 根本씨는 그 석상에서 사은회의 취지를 발표하고 꼭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회중에게 노력하였다.<sup>27)</sup>

그렇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이때는 이마이치에 있는 호장(戶長)들 중에 반대하는 자가 있었고, 니노미야의 문인들조차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적극성을 띠지 않았기 때

치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國家神道』(2002, 岩波, pp.78 ~80)).

27) 二宮尊德翁五十年祭奉行會(明治39), 『二宮翁五十年年記念帖』, 三秀舎, p.145.

문이다. 그 후 1885년 니노미야의 문인의 한 사람인 후쿠스미 마사에(福住正兄)가 이마이치에 있는 묘에 참배하러 왔을 때, 후쿠스미는 지역유지였던 여관주인 와타나베(渡邊竹七)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지역은 공덕이 높은 니노미야가 잠들어있는 땅이면서도 아무런 송덕기념시설이 없는 것을 실로 한탄스러워<sup>28)</sup> 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다음해 12월에는 소마(相馬)지역의 관계자들로부터는 다시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었지만, 가미쓰가(上都賀)·가와치(河内, 지금의 大阪府의 동부)·시오야(鹽谷) 세 개 군의 26개 촌·26명이 송덕비 건설 발기인 회의를 창설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신사건설 방침으로 전환된다. 더 나아가 1887년(明治20) 4월에는 시오바라(鹽原)에 내유(來遊) 중이던 시나가와 야지로(品川彌二郎)<sup>29)</sup>를 설득시켜 신사창립발기인의 필두에 이름을 실게 되는 것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발기자 간의 의견의 충돌이 있고, 또한 외부에서 발기인의 일부에 대하여 달리 말하는 자가 있어, 그 여파가 이마이치 정치(町治)의 갈등이 되어 수 년 동안 풀리지 않아, 신사 창건의 사업은 결국 유아무야한 일로 되어 버린다.<sup>30)</sup>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이마이치에서는 1892년(明治25)에 겨우 신사창건의 움직임이 현실화 되어 간다. 그러나 가장 먼저 신사 창립원이 제출된 곳은 사쿠라마치(櫻町)이었다. 그것은 유서서(由緒書)에 ‘니노미야 생업의 지역인 점, ‘니노미야가 20 여년 기거하여 사법(仕法)을 지도한 처소(櫻町陣屋)가 현존하는 점, ‘報德訓의 기념비 건설과 같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報德二宮神社創建考』, p.885). 그러나 결국 사쿠라마치의 신사 건설은 각하되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1892년(明治25) 오다와라(小田原)와 이마이치(今市)로 결정된다. 오다와라는 니노미야가 태어난 곳이고, 이마이치는 니노미야가 사망한 곳이다.

그리하여 1894년(明治27) 小田原二宮神社 천궁진좌식(遷宮鎮座式)이 거행되고, 1897년(明治30) 今市二宮神社 천궁진좌식이 행해졌다. 동 33년 이마이치의 신사는 현사(縣社)로 되고, 동 39년 오다와라의 신사도 현사가 되었다.

28) 翁五十年祭奉行會(明治39), 전게서, p.146.

29) (1843~1900) 幕末 明治期の 정치가. 명치 10년 西南戰爭 진압에 진력하였고, 동 14년 農商務省에서 식산흥업에 힘썼다. 동 17년 자작이 되고, 동 18년 주독(駐獨) 일본공사를 역임하고, 동 20년 귀국 후 궁중 고문관, 22년 御料局 장관을 겸임하고, 황실제산을 확립하였다. 동 24년 6월 제 일차 松方 내각의 내무대신이 되었다.

30) 翁五十年祭奉行會(明治39), 전게서, pp.145~148.

<사진 1><sup>31)</sup>



小田原 報徳二宮神社 본전

<사진 2>



今市 報徳二宮神社 본전

<사진 3>



今市報徳二宮神社의 제례모습<sup>32)</sup>

<사진 4>



이러한 정황에서 보았을 때, 明治14년(1881) 까지만 하더라도 신사창건의 문제는 국가 레벨은커녕 지역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니노미야의 문인들 사이에서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사창건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1880년대 후반부터였으며, 후쿠스미 마사에를 비롯한 보덕사원들과 시나가와 야지로같은 정치적인물이 그 창건 계기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사의 창건지를 둘러싸고 보덕사원들의 격렬한 논의가 있을 때, 당시 내무대신이었던 시나가와 야지로는 오다와라로 변경시키는데 힘을 작용하기까지도 하였다는데서 이를 잘 입증해준다.

신사 창건지를 둘러싸고 보덕사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의가 일어났다. 먼저, 1892년 2월 21과 22일에 相模·箱根湯本の 福住正兄 저택에서 相遠駿豆甲三勢의 7개 지방의 총대회가 열려 그 장소에서 小田原 報徳社員이 ‘小田原’에 신사건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견들

31) <사진1>에서 <사진4>까지는 필자에 의함(2004년 11월 13~20일, 일본 현지 자료조사 함).

32) 이것은 이마이치(今市) 報徳二宮神社에서 2004년 11월 17일 행한 제례의 모습이다.

이 분분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찬성자는 松島吉平(遠州·報徳遠讓社 부사장)을 총대(總代)로 하여 지난 2월 23일 상경하게 하여, 品川 내무대신을 만나 누누히 진정(陳情)하였더니, 대신도 크게 이것을 칭찬하고, 小田原으로 변경하는 일이 나타나' ...<sup>33)</sup>

니노미야를 위한 신사의 창건은 明治시대의 1880년대에 적극적 활동을 통해 1890년대 중반과 후반에 완성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무렵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 재정곤란과 농민·도시 하층민들의 빈궁한 생활의 연속적인 악순환의 상황이었다.

특히 신사건립 바로 이전의 시기는 明治유신 이래의 새로운 사회경제정책·부국강병책에 의한 사회의 불안정감 속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이 농민층과 사족들에 의해 강하게 전개되었고, 자유민권운동도 왕성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농민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근로로써 일가를 일으키고 무사의 신분까지 출세하였으며, 막부의 재정을 돕고 농정가로서 큰 활약을 하여 600여 마을을 부흥시킨 니노미야는 국민의 교화를 위한 모범인물로 삼을 만 하였다. 특히 그의 사상 중에 최선(至誠)을 다해 근로하고, 또한 근검을 행하고, 이리하여 생긴 이익은 사회에 환원 즉 추양(推讓)해야 한다는 근면(勤)·검약(儉)·추양(讓)의 가르침<sup>34)</sup>은 위정자들에게 있어 신사를 세워 '시대의 모범인물로 표상화'해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다음의 나라키 타쓰야(奈良木辰也)의 말은 明治정부가 니노미야를 중시한 까닭을 잘 나타내준다.

明治정부가 니노미야를 중시한 까닭은,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가 살아 있던 시대에는 江戸시대중에서도 봉건사회 모순의 폭발인 농민 봉기(百姓一揆)가 각지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그것이 대 규모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니노미야가 농민봉기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결코 정치를 입에 내지 않고, 현상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농민자신의 근면과 검약에 의해 농촌의 모순을 해결하였기 때문이다(奈良木辰也『二宮尊徳』(昭和34년)),<sup>35)</sup>

근면·검약·추양의 정신으로 농민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니노미야의 실천적 사상은 明治시대의 위정자에게 무엇보다도 신질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덕목이었을 것이다.

한편 明治유신 이후에도 니노미야의 문인들이 報徳社라고 하는 결사를 만들어, 사가미(相模)·스루가(駿河)·도오토미(遠江) 등 여러 지역에서 니노미야의 보덕사상과 운동을 전개하고 계승하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니노미야를 신격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明治정부가 니노미야의 적손 손신(尊親)과 함께 후쿠시마현(福島縣) 소마(相馬)에서 보덕사법을 계속 실천하고 있던 문인 도미타 다카요시(富田高慶)에게 1880년(明治13) 정칠위(正七位)를 수여하고 '구 나카무라번(中村藩)의 쇠퇴(衰弊) 회복...개간

33) 見城悌治(昭和48), 「報徳二宮神社創建考」, 『史艸』, 日本女子大學史學研究會 pp.886 ~887.

34) 주 (10) 참조.

35) 中村紀久二(1990), 『復刻 國定修身教科書 解説』, 大空社, p.138에서 재인용).

식산'의 공으로 50엔을, 또한 손신에게도 손토쿠(尊徳)·손코(尊行) 3대에 걸쳐 '권농...개간식산'의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100엔을 하사<sup>36)</sup>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明治 정부는 明治24년(1891) 11월 16일 니노미야에게 '중4위(從四位)'를 증위하였다. 이 중4위의 증위는 니노미야신사의 창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증위는 후쿠스미 마사에(福住正兄)·오카다 단잔(岡田淡山) 등의 니노미야 직문의 제자들과 시나가와 야지료 品川彌二郎)·히라다 토스케(平田東助) 등의 고위관료 들과의 친교에 의한 것이었다.<sup>37)</sup> 그리고 신사창건의 숨은 공신으로 명치국가법 정비의 주역이었던 이노우에 고와시(井上麿)도 빠뜨릴 수 없다. 이렇듯 신사 창건에는 고위 관리들의 큰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신사창건은 근대정부의 국가지배의 편이성을 위해 국민교화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을 현창신으로 만드는 국가신도 정책 하에서,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시대의 모범인물'을 찾는 고위 정치관료 들과 니노미야의 뜻을 기리고자하는 문인들의 입장과의 관계성 속에서 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근로의 신'으로서의 二宮尊徳

니노미야가 신의 성격으로 봉사된 것은 江戸시대 말(安政 6년[1859]) 德次郎 용수의 취입구 부근에 수신(水神)으로 모셔진 것이 최초이다.<sup>38)</sup> 니노미야가 사망한 지 3년 후에 해당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민간신앙의 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도 이마이치지역의 일부 민간에서는 수신으로 받들고 있다. 그러나 明治시대에 창건된 報徳二宮神社에서는 수신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 오다와라신사에서는 '근면의 신'·'학문의 신'으로, 이마이치신사에서는 '농업의 신'·'학문의 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는 신사에 종사하는 사람도 언제부터 불렸는지 모르며, 현재까지의 제신의 성격으로 굳어져 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민간에서와 신사에서 모시는 신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신의 성격 변화는 근대에 교육된 교과서 중의 수신교과서<sup>39)</sup>에 제시된 덕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니노미야는 검정수신교과서에서만이 아니라 문부성에서 국정교과서를 펴 때 어느 누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국민모범인물'로서 상정된 인물<sup>40)</sup>이었기 때문이다.

36) 見城悌治(昭和48), 전게서 p.881에서 재인용.

37) 見城悌治(昭和48), 전게서 p.881.

38) 佐々井信太郎, 『二宮尊徳傳』, 日本評論社, p.593.

39) 수신교과서는 지금의 도덕교과서 같은 성격의 교과서로 모범이 될 만한 여러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니노미야가 가장 모범인물로서 각광을 받았다.

40) 石田傳吉(昭和14), 『二宮尊徳報徳書訓』, 浩文社 p.4.

1893·1894년부터 ‘검정수신교과서’의 대부분이 ‘니노미야 킨지로(二宮金次郎)<sup>41)</sup>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를 취재하게 되는데, 이때의 니노미야를 통한 덕목의 대부분은 ‘근면’·‘학문’·‘공익’이었다. 이때는 신사창건지가 오다와라와 이마이치로 결정된 1892년(明治25)의 바로 다음 해이다. 니노미야에게 붙여진 ‘근면의 신, ‘학문의 신’이라는 제신의 성격은 신사창건지가 결정된 무렵부터 정해지고, 니노미야를 수신교과서에 ‘근면’·‘학문’ 덕목의 모범인물로 삽입하여 아동에게 교육되어야 하는 덕목으로써 본격적으로 교육시켜 나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니노미야신사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니노미야를 학문의 신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報徳記』내용 중에 니노미야가 유년시절에 산에 나무하러 오고 갈 때 걸으면서 대학을 읽고, 또 일찍 부모를 여의어 백부의 집에 맡겨져 있을 때 저녁 일까지 다 마친 후에 한 밤중에 살며시 책을 읽었다는 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풍부한 독서량과 농민으로서의 체험 등에 의해 천지만물에 대한 독자적인 사상을 낳았기 때문<sup>42)</sup>이라고 한다.

그러나 니노미야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와 같은 학문의 신으로서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明治시대의 니노미야에 대한 위인·모범인물로서의 성격은 대체적으로 니노미야의 지적 학문적 영역이 아니라 근로정신에 입각한 근면과 근검을 몸소 실천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이 실천사상으로 농민을 교화하여 나태풍습을 쇠신하였으며, 이는 곧 국부의 원천이기에 니노미야를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치지 쇼이치(吉地昌一)가 니노미야의 인격과 신으로 모셔진 이유에 대해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제시하는 바와 같이 <칼(劔)에 의하지 않고 지식(學)에 의하지 않고 선생은 팽이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팽이를 가지고 국토를 개척하고, 실천을 가지고 인류가 향해야 할 대도를 보였다. 결국 선생의 인격은 신격이 되어 영령은 신으로 모셔졌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니노미야가 ‘지식(學)에 의한’ 모범인물로서 신이 되지 않았고, 근로의 실천을 행하였기에 신이 되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인격자는 신으로 모셔진다. 菅原道眞, 楠正成, 乃木大將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지만 二宮선생도 또한 報徳二宮神社를 세워 모시고 있다. 칼(劔)에 의하지 않고 지식(學)에 의하지 않고 선생은 팽이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팽이를 가지고 국토를 개척하고, 실천을 가지고 인류가 향해야할 대도를 보였다. 결국 선생의 인격은 신격이 되어 영령은 신으로 모셔졌다. 실로 선생은 영원한 인격이고 천지와 함께 불멸의 생명이다. 일본정신의 권화(權和)요 국본적인 실천창조자요 태양이 비추는 곳 더할 데 없는 도이다. 어찌 위대하지 않다고 하겠는가.<sup>43)</sup>

41) 二宮尊徳의 어렸을 때 이름.

42) 二宮尊徳이 ‘학문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에 대한 오다와라(小田原) 報徳二宮神社의 宮司와의 문답내용(2005. 6. 26).

43) 吉地昌一(昭和13)[昭和12], 『二宮尊徳全集 逸話雜錄編』全集刊行會, p.18.

이러한 면에서 니노미야 신격의 경향은 ‘학문의 신’ 보다는 오히려 ‘근면의 신’ 쪽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근면의 신’에서의 ‘근면’은 ‘근로’라는 단어로 치환하여 ‘근로의 신’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이치의 신사의 농민의 신’ 또한 의미상의 맥락에서 ‘근로의 신’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언어적 의의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

니노미야의 신격을 ‘근로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로는, 근대의 국정수신교과서에서 니노미야가 제시되고 있는 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국정수신교과서(1904년부터 종전 1945년까지 5기에 걸쳐 발간되었음. 필자주.)에서 니노미야가 나오는 과는 총 18개 과로, 형태적으로 제목에서 드러나는 덕목들(효, 학문, 근로, 근면, 근검, 자립, 형제우애 등) 중에, 효(5회), 학문(4회)의 덕목을 가장 빈도 높게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덕목처럼 보이지만, 교과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18개 과의 가장 통약적인 핵심덕목은 ‘근로’로 나타난다. ‘근로’는 니노미야가 제시하는 여타덕목을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니노미야를 ‘가장 모범적인 일본인’, 혹은 ‘도덕의 인물’로 칭한다고 했을 때, 니노미야는 곧 ‘근로의 모범인물’임을 의미 한다<sup>44)</sup>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니노미야는 ‘학문의 신’, ‘근면의 신’, ‘농업의 신’의 내면의 의미는 결국 ‘근로의 신’으로 집약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학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은 니노미야가 ‘학문의 신’으로 낙착이 된 데에는, 당시의 소학교 폐지 폭동이 적지 않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정부적인 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의 부모는 처벌되던 정부당국의 강제 상황에서도 실제 취학률은 1886년까지 30%전후였고, 1895년에는 52%에 그쳤다. 이때는 報德二宮神社의 창건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학문의 신’으로 신격화한 것은 니노미야가 그의 전기 『報德記』나 수신교과서에서 ‘근로하면서 존음을 아껴 학문을 한다’는 즉, 니노미야처럼 근로를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고도의 근면·근로정신 고취와 함께 취학장려의 의도가 있는 신격 부여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가신도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농업의 신’·‘근면의 신’·‘학문의 신’으로서의 성격은 결국 국부증진의 원천인 농업생산증진을 위한 ‘근로의 신’ 의미로 통괄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신사창건 이전에 이마이치지역의 일부 민간에서 모셨던 수신은 신사의 신으로 영입되지 못하고 배제되어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44) 김우봉(2004), 「일본근대교육에 있어 ‘모범인물’창출과 양상-「수신」교과서의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德)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제 23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240~241.

## 6. 결론

江戶시대 말기의 농정가였던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는 明治시대에 들어와서 신사의 신(1894년[明治27·小田原報徳二宮神社], 1897년[明治30·今市報徳二宮神社])으로 신격화 되었다.

니노미야 신격화는 기본적 입장은 일본의 고대로부터의 인신신앙의 습속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明治정부가 천황제 국가 지지기반을 위해 국민교화의 목적으로 만든 ‘현창신(顯彰神)’이라는 굴절된 인신신앙의 결과물이었다. 이는 근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위한 국가신도의 변용된 특수한 정치 사회적 상황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고대로부터의 내려오는 인신신앙, 즉, 원령관념에 기초한 어령신앙이 신에 대한 영험함을 기대하여, 모시는 쪽의 ‘구제(救濟)나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강한 것이 신앙을 지탱하던 원동력이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일본근대에 니노미야를 신격화하고 더불어 제시된 현창활동은 그의 전기 『報徳記』, 위인전의 출판, 수신교과서, 동상(二宮金次郎像) 등을 통해 짧은 기간에 사회저변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일련의 시스템은 明治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각자의 요소가 상호 협력하여 높은 국민교화 상승효과를 보이며 패전 전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일본 근대의 인신신앙 발전과 전개과정에 있어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今市와 小田原의 報徳二宮神社에서 니노미야는 제신으로서 ‘농업의 신’·‘근면의 신’·‘학문의 신’ 신격으로 모셔지고 있다. 이는 신사창건 무렵부터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 근대의 교육현장을 통해 상징되고 강조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정착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사건립 이전부터의 일부민간(今市지역)에서 모시고 있던 수신(水神)은 신사창건이 국가신도의 이데올로기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사의 ‘신의 자격’에서 배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근대에 있어서 니노미야의 ‘근면의 신’·‘학문의 신’의 의미는 결국은 ‘근로의 신’으로 대체될 수 있는 동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국정수신교과서’에 니노미야가 나오는 18개 과 교과내용의 가장 통약적인 핵심덕목이 ‘근로’이며, 이 ‘근로’는 니노미야를 통해 본받아야 할 여타덕목을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신이 된 근본적인 요소는 학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실천’에 의한다고 기치지 쇼이치(吉地昌一)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明治정부가 니노미야를 신격화한 것은 명치 30년대 전후의 국가 재정곤란, 농민·도시 하층민들의 빈궁한 생활의 연속적인 악순환의 시대적 상황에서 무규범, 무질서 억제를 위한 즉, 사회적 구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정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근대 인신신앙의 전개과정에서 살펴본 니노미야의 신격화는, 국가신도를 도구로 천황제와 제국주의 확립의 국가경제 기반을 위한 ‘근로의 모범인물’로

현창하여, 근대일본 사회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천황제하의 전 국민을 노동공동체로써 이끌어 내기 위한, '종교에 의한 근로정신의 실천'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 【參考文獻】

- 김우봉 (2004), 「일본근대교육에 있어, '모범인물' 창출과 양상- '수신'교과서의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를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제23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240 ~241.
- 고마쓰 가즈히코·김용의 외 역(2005) 『일본인은 어떻게 신이 되는가』, 민속원, p.5~ 8.
- 井上雅夫(明治42), 『二宮尊徳翁と現社會』, 文友堂書店, pp.181~ 182.
- 石田一郎(昭和58), 『カミと日本文化』(神道論序説), ぺりかん社, pp.95 ~96.
- 石田傳吉(昭和14), 『二宮尊徳報徳畫訓』 浩文社 p.4.
- 唐澤富太郎(昭和31년), 『教科書の歴史』, 創文社, pp.674~7.
- 小松和彦(2001), 『神になった人びと』, 淡交社, p.11 ~16, pp.224 ~232.
- 見城梯治(昭和48), 『報徳二宮神社創建考』, 『史艸』, 日本女子大學史學研究會, p.881.
- 阪本是丸외 5인 (2002), 『日本の宗教と政治』, 成文堂, p.127.
- 佐野賢治외 3인 (2000), 『現代民俗學入門』, 吉川弘文館 p.108.
- 留岡辛助(明治28), 「農業と二宮尊徳」, 警醒社書店, p.47.
- 村上重良(1986), 『天皇制國家と宗教』, 日本評論社, pp.78~ 80. p.177.
- 中村紀久二(1990), 『復刻 國定修身教科書 解説』, 大空社 p.135, p.138.
- 二宮尊徳翁五十年祭奉行會(明治 39), 『二宮翁五十年年記念帖』, 三秀舎, p.49, pp.145~146.
- 西谷忠雄(明治42), 『教育と二宮尊徳』, 警醒社, p.62.
- 岸根敏幸(2004), 『日本の宗教- その諸様相』, 晃洋書房 p.81.
- 柳田國男(1969), 「人を神に祭る風習」 『定本柳田國男全集』第5卷), 筑摩書房.
- 文部省發行·大空社復刻(1990), I 期~IV 期, 『尋常小學修身書』
- 文部省發行·大空社復刻(1990), V 期『ヨイコドモ』上·下, 『初等科修身』

## 要 旨

江戸末期の農政家であった二宮尊徳は明治時代に神社に神(1894年[明治27・小田原報徳二宮神社]、1897年[明治30・今市報徳二宮神社])として祭られた。

二宮尊徳の神格化は基本的には日本の古代からの人神信仰の習俗によるものであったが、明治政府が天皇制國家の支持基盤である國家神道を道具にして、國民教化のための神にした過程で現れたと言えよう。これは顯彰型の神と呼ばれ、古代からの人神信仰、すなわち、怨靈觀念に基礎をおいた御靈信仰が、神の靈驗を期待して祭る者の救済・利益を請うのが信仰を支える原動力であったのとは根本的に違う物であった。國家權力が神道に深く介入して、國家の新秩序を建てていく過程の特殊な政治、社會的狀況によるものであったと言えよう。これは近代日本の人神信仰の發展と展開過程における獨特な特徴だと言えらるう。

二宮尊徳は神社の祭神として「農業の神」「勤勉の神」「學問の神」として祭られている。このような神格は神社創建の頃に決定されたとみえ、近代の教育現場を通じてシンボル化され、強調されながら今まで変わらないで定着されて來たと思われる。それ以前に民間の一部(今市の一部)では水神という神格で祭っていたが上記の神社建立が國家神道のイデオロギー的な要素による物であったので、水神は二宮神社の神格からは排除されたい。

さて、近代における「勤勉の神」「學問の神」という意味は結局は「勤勞の神」に代わる同質のものだと言えよう。『國定修身教科書』の二宮尊徳の出てくる18の課の教科内容の一番共通した核心になる徳目は「勤勞」であり、この「勤勞」という徳目は二宮尊徳が提示する様々な徳目の實踐に一番重要な前提條件として作用しており、吉地昌一が言っているように神になった根本的な要素は彼の學問による物ではなく、「勤勞實踐」によるということがこれをよく表している。

したがって、近代人神信仰の展開過程において二宮の神格化は天皇制と帝國主義の國家體制の基盤を確立するための「勤勞の模範人物」としての顯彰であり、近代日本の社會システムの頂点にあった天皇制の下、全國民を勞働共同體として導いて行くための「宗教による勤勞精神の實踐」のためのものであったといえらるう。

キーワード：模範人物, 人神信仰, 顯彰神, 御靈信仰, 國民教化, 報徳二宮神社, 學問の神, 勤勉の神, 勤勞の神

투 고 : 2006. 2. 28

1차 심사 : 2006. 3. 11

2차 심사 : 2006. 4. 1

住 所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62-522-5430 / 016-622-4839

e-mail : kimwb@chonnam.ac.kr